

잔잔한 미소와 온화한 마음의 김방한 선생님*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1. 김방한 선생님과 만나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이 동승동에 있을 때인 1973년 2학년 1학기 말의 어느 날, 동부 연구동에 자리 잡은 언어학과 합동 연구실에 들어갔다. 합동 연구실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학과 사무실 겸 도서관이다. 조교 선생님이 “재일이, 김방한 선생님께서 아침부터 찾으셔. 빨리 가 봐.”라고 말했다. 합동 연구실을 나오면 바로 오른쪽 방이 김방한 선생님 연구실이고 복도 맨 끝 방이 허웅 선생님 연구실이었다. 허웅 선생님 연구실은 1학년 때부터 자주 들렀던 방이지만 김방한 선생님 연구실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 선생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허웅 선생님 방과는 사뭇 달랐다. 너무나도 가지런히 정돈된 서가와 책상 위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놓인 책들. 금방 다림질한 듯 깔끔하게 줄이 선 선생님의 바지처럼.

“자네의 성실한 학문 태도에 대해선 강의 시간에도 잘 알고 있는데 ‘비교

* 이 글은 글쓴이의 다음 두 글을 바탕으로 새로 고쳐 다듬어 쓴 글이다. [1] '잔잔한 미소, 온화한 마음'(《김방한 선생 10주기 추모 문집, 김방한 선생님을 다시 만나다》, 86-101, 한국언어학회·한국알타이학회, 2011), [2] '김방한 선생의 학문 세계'(《김방한 선생 추모 학술대회 논문집》, 1-22, 한국언어학회, 2011)

언어학' 학기 말 시험지를 보니 대단하더군. 완벽하게 썼더군. 그리고 어제 저녁에 국문과 안병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 과목도 시험을 무척 잘 봤다고 칭찬하더군. 더욱더 분발해서 학문의 길에 정진하게.” 이 말씀에 “예.”라 크게 대답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연구실을 나왔다. 이날이 김방한 선생님과 개인의 첫 만남이었다.

이렇게 동숭동에서 김방한 선생님과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8년 이 지난 2001년 10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뵈게 되었다. 2001년 여름부터 나는 미국 블루밍턴에 있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차 10월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제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회가 열려 그곳에 가기 위해 서울에 잠시 들렀다. 서울에 오니 선생님께서 입원해 계신다 하였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만히 누워 계시며 가끔씩 눈을 뜨셨다. 제가 왔다고 하니, 언제나처럼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잡으셨다. 나는 손에 차츰차츰 힘을 더 주어 선생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듯하셨지만 말을 잊지 않으시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셨다. 카자흐스탄에 다녀오겠다 인사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김주원 교수와 함께 알마티에서 학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10월 18일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아! 지난번 병원에서 뵈는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그리고 이곳에 와 있어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다니. 선생님께 죄스러운 마음 가득하였다. 서울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 댁에 들러, 북극 지역 출장 중 뒤늦게 귀국했다는 셋째 아드님을 조문하고 함께 선생님을 회고하였다. 선생님의 묘비명을 쓰라 하면 다음과 같이 써야겠다 생각하며 선생님 댁을 나섰다. “여기 우리나라 현대 언어학과 알타이어언어학의 초석을 다진 김방한 선생, 잠들어 계시다.”

2. 김방한 선생님의 학문 특징

김방한 선생님(1925년-2001년)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1953년 강사, 1956년-1990년)로 재직하면서 언어학 연구와 교육에 한평생을 보낸 우리나라 제1세대 언어학자이다. 한국언어학회 회장과 한국알타이학회 회장을 맡아 초창기 학회 건설에도 공헌하였다.

선생님의 자서전 《한 언어학자의 회상》(1996)에 따르면 선생님은 중등학교부터 대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영어문법학에 심취하였다. 여기서부터 선생님의 언어학이 출발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김방한 선생님 학문의 기본 성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대 언어학 이론을 폭 넓게 섭렵하여 해설함으로써 초창기 한국 언어학계를 계몽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학논고》(1970)를 발간하고 또한 ‘언어학사’ 강의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하여 소쉬르의 구조주의언어학, 프라그학파의 기능주의언어학을 비롯한 유럽의 언어 이론, 그리고 미국의 구조주의언어학,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이르기까지 세계 언어학계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하여 넓은 시각에서 언어 이론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여 한국의 언어학, 한국의 언어학자가 세계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언어학 제1세대의 책무를 다하였다.

둘째, 인도유럽어 역사비교언어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몽골어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알타이어언어학을 확립하고 나아가 한국어 계통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김선기 선생님의 권유로 알타이어언어학을 연구 과제로 삼고 몽골어학을 전공하였다. 몽골어학을 비롯한 알타이어언어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이론인 인도유럽어 역사비교언어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김방한 선생님의 대표 저서 《한국어의 계통》(1983)의 ‘자서(自序)’에

서 밝힌 다음 서술은 바로 선생님 학문의 기본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한국어의 계통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과 알타이제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에 관한 기술이 필요했다. 진정한 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을 모르는 그리고 알타이제어에 관한 깊고 광범위한 지식이 없는 한국어 계통 연구는 한낱 사이비 한국어 계통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개별언어 연구를 위해 일반언어학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김방한 선생님 학문의 특징은 바로 ‘일반언어학에서부터 개별언어학으로’라 하겠다.

일찍이 《언어학논고》의 ‘자서’에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언어학 연구의 올바른 방법을 천명하였다. 이론언어학의 토대가 없는 개별언어학이란 생각할 수 없다. 어느 이론이나 학설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포착하여 봄으로써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시야를 넓혀야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 언어 이론이나 각 학파의 이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중용의 태도를 취하는 연구 방법을 강조하였다. 선생님은 강의 때마다 언어학도는 처음부터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히는 것을 피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생님은 일반언어학뿐만 아니라 개별언어의 연구도 강조하였다. 언어학자는 일정한 수준의 어느 개별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개별언어의 기술은 물론 일반언어학으로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몽골어를 개별언어로서 연구한 것이다. 한국어의 계통을 연구하고 또한 한국어의 음운사, 문법사에 관심을 가진 것 또한 그러하다. 이제 이러한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이룩한 선생님의 학문을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 ① 일반언어학과 언어학사 연구
- ② 역사비교언어학 연구
- ③ 알타이어언어학과 몽골어학 연구
- ④ 한국어의 계통과 역사 연구

3. 일반언어학과 언어학사 연구

선생님의 일반언어학과 언어학사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에는 1970년의 《언어학논고》와 1985년의 《언어학논고(Ⅱ)》가 있다. 이를 1999년에 《언어학논고》로 합본하여 발간하였다. 《언어학논고》(1970)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발표한 논문 가운데서 언어의 본질, 구조, 연구 방법과 원리 등, 특히 소쉬르의 구조주의언어학, 프라그학과 이론, 미국의 구조주의언어학, 변형생성문법에 이르기까지 일반언어학 이론에 관한 논문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언어학의 이론과 방법>은 19세기 초부터 구조주의 이전까지의 언어학 연구사이다. 19세기의 고전비교언어학, 젊은이문법학과, 심리주의언어학, 20세기 초기의 언어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 이론을 해설하였다. <현대 언어학의 경향>은 구조주의 이후의 연구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고찰한 것으로, 소쉬르의 언어 이론, 음운 연구, 언어 분석과 층위, 영국의 언어학, 미국의 언어학, 덴마크의 언어학, 그리고 통시 음운론을 분석하였다. <현대 언어학의 언어 구조의 개념>은 당시 언어학 논저에서 구조나 체계라는 용어가 일정한 개념 규정 없이 서로 혼용되어 쓰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조’의 개념을 정확히 규명하였다.

《언어학논고》(1970)가 주로 언어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 데 비해 《언어학논고(Ⅱ)》(1985)에서는 현대 언어학에서 제기되는 핵심 과

제에 중점을 두었다. 어떤 학문 분야에서 어느 특정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연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그 학문 전체에 대한 연구가 발전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언어학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 책에는 김방한 선생님의 언어관과 언어 연구관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아울러 페르디낭 드 소쉬르, 로만 야콥슨, 앙드레 마르티네, 노뮈 촘스키에 대한 언어학사적인 서술이 전개되어 있다.

1953년부터 오랜 동안 ‘언어학사’를 강의하면서 선생님은 언어학사 저술을 계획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선 1982년에 밀카 이비츠의 《언어학사》를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언어에 관련된 모든 연구 분야와 여러 학파의 다양한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꼭 맞는 것이 이비츠의 책이라 회고한 바 있다.

김방한 선생님의 일반언어학의 기반은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1916)이다. 소쉬르에 대한 연구는 선생님의 논저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998년 《소쉬르: 현대 언어학의 원류》를 발간하여 마무리하였다. 이 책에서 언어의 본질과 소쉬르의 연구 정신을 보이려 하였다.

한편 선생님은 언어학 개설서를 집필하려는 의지가 강하였다. 언어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과 언어의 본질과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교양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언어학 전반을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설서를 집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의 결실은 먼저 공저로 두 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1985년의 《언어학개론》, 《일반언어학》이 그것이다. 1992년에는 단독 저술로 《언어학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전통 언어학 이론과 현대 언어학 이론 어디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책을 의도하였다. 여러 이론들은 전적으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이론에 입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을 두루 살펴 제시하였다.

4. 역사비교언어학 연구

김방한 선생님의 주된 연구 대상은 알타이어언어학이다. 알타이어언어학 연구를 위해서는 인도유럽어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비교언어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늘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 연구에서 손 댄 적이 없었다.

인도유럽어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출발한 선생님의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는 그 방향을 점차 확대해서 나중에는 어원론, 선사언어학에 이르렀다. 그래서 역사비교언어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공시태와 통시태의 관계, 역사언어학에서의 설명의 문제, 언어 변화의 원인, 언어 변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언어유형론과 역사언어학과의 관계 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역사비교언어학의 관심 영역의 추이와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역사통사론, 언어유형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역사비교언어학에 관한 저서 가운데 대표적인 두 저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1988년에 발간한 《역사비교언어학》이다. 이 책은 어느 한 이론에 입각해서 언어 변화의 통일된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이론을 두루 살피면서, 될 수 있는 한 그 장단점을 비교·검토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사언어학과 ‘설명’, 음 변화, 형태 변화와 유추, 통사 변화, 내적 재구, 비교 재구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책에서 언어연대학과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언어연대학은 근거가 희박하고 이론이 불합리하여 특히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을 수치화하려는 데 큰 위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의미 변화의 역사적 접근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첫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1994년에 발간한 《언어와 역사》는 그동안 ‘역사비교언어학’을 강의하면서, 또 알타이어언어학과 한국어 계통을 연구하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방법론적 문제를 고찰한 연구이다. 특히 언어학이 고고학이나 선사학 등과 접목되어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인도유럽어 비교언어학에서 어떤 언어 요소가 어떻게 비교되고 또 어떻게 재구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5. 알타이어언어학과 몽골어학 연구

알타이어언어학에 관한 김방한 선생님의 대표적인 논문은 <Altai어에 있어서의 보충법에 관한 고찰>(1963), <Relation between Korean and the Altaic languages>(1970), <알타이제어 연구의 동향>(1979) 등이다.

김방한 선생님의 주된 개별언어 연구는 몽골어이다. 몽골어와 한국어의 음운, 문법 비교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황금사(黃金史, Altan Tobči)》로 대표되는 몽골 고전의 번역과 몽골어의 음운과 어휘 연구에 힘썼다. 몽골어학 연구에 대한 주요 논문은 1999년에 발간한 《몽골어연구》에 다시 수록되어 있다.

몽골어 연구의 첫 논문은 1957년의 <『원조비사』 몽고어연구 - 그 문법체계를 위한 시도 ->인데 탈격 용례에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밝혔다. 그리고 초기의 일련의 몽골어 관련 논문을 통해 한국어의 주격조사의 기원을 밝히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알타이어에서 주격이 '영(zero)' 형태로 실현된다는 공통 특질을 기반으로 삼아 중세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주격조사 '이'의 기원을 3인칭대명사에 두었다. 《몽어노걸대》에 나타나는 i를 포폐와 같이 대격으로 보지 않고 3인칭대명사의 주격 형태 i가 화석화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몽골어, 터키어, 한국어의 인칭대명사를 비교하여 알타이어의 1인칭대명사 복수형은 단수형인 *bi에 복수접미사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어의 1인칭대명사 복수형 '우리'를 *buri로 재구하여 알타이

어와 같은 기원임을 제기하였다.

《몽골어연구》(1999)에 실린 논문들은 1950년대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몽골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tan Tobči 연구>는 황금사 몽골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로서 이본과 내용 검토를 통해 편술 연대의 범위를 1604-1630년으로 한정하였으며, 음운, 형태, 통사 특징을 밝혔다. <원시 몽골어의 장모음에 대하여>는 원시 몽골어의 장모음 연구를 통해서 몽구오르 방언과 통구스어의 솔론 방언에 차용된 몽골어 어휘들을 연구하였다. <몽구오르 방언의 어두자음군에 관하여>는 어두자음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몽구오르 방언의 어두자음군은 악센트가 어두음절에서 비어두의 다른 위치로 완전히 이동한 단어에서 악센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제1음절 모음 및 어두 모음이 탈락하여 나타나게 된 것임을 밝혔다. <몽구오르 방언의 차용어에 대하여>는 몽구오르 방언에 들어온 중국어, 티베트어, 만주어를 품사별로 살핀 연구이다.

6. 한국어의 계통과 역사 연구

한국어에 대한 김방한 선생님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계통 연구이다. 알타이어언어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섭렵한 뒤 이를 체계화하고, 여기에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계통 연구를 전개하였다.

람스테트가 한국어 계통이 알타이어족임을 분명히 한 이후 국내 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한 논문이 바로 김방한 선생님의 <한국어 계통 연구의 문제점>(1976)이다. 이 논문은 다른 연구자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포페가 그의 저서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1965)에서 한국어는 원래 비알타이어였던 것이 알타이어를 사용하던 층에 얹힌 것일 수 있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김방한 선생님은 언어학적으로 한국어의 계통 관계가 쉽사리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어서 한국어에 있는 비알타이어 요소를 찾기 시작하였고 그 시야는 고아시아족 언어인 길리아크어에 미쳤다. 여기서 선생님의 한국어 계통 연구는 구체화되었다.

1983년 《한국어의 계통》이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이란 저서로 발간되었다. 이 저서는 한국어 계통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 보면서 그동안 선생님이 발표하였던 논문을 체계화하고 한국어 계통에 관한 선생님의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평소에 생각해 왔던 한국어는 어디서 왔으며 그 뿌리는 무엇인가, 또 한국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다른 어떤 언어와 친근 관계가 있으며 또 한국어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다.

저서 《한국어의 계통》에서 제시한 선생님의 계통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계통 문제이다. 저서 제4장에서 한국어와 알타이어를 음운, 형태 어휘 면에서 비교하고 공통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음운 대응에 주목하였다. 아직 음운 체계 전반에 걸친 음운 대응을 정확하게 공식화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대응 규칙을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알타이어의 친근 관계를 가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다만 그 증거가 앞으로 더 보강되고 더욱 정밀화되어야 하겠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의 계통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몇몇 학자는 한국어와 알타이어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한국어의 위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한국어의 위치가 도식화할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필자의 지금 생각으로는 한국어가 퉁구스제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원시한반도어 문제이다. 선생님은 저서 제3장에서 고대 한반도에

는 계통을 달리하는 몇 가지 언어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음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대 한반도의 언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옛 지명이 보여 주는 바에 따라 두 언어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옛 지명은 한반도의 언어가 알타이어화된 상태를 보여 주는 동시에 어떤 알 수 없는 언어의 기층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고대 한반도에는 원시한반도어라 부르는 기층 언어가 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에서 추정되는 언어에는 두 언어층이 있다. 하나는 통구스어계의 언어층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불명의 언어층이다. 이 불명의 언어층이 바로 필자가 원시한반도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시한반도어는 한반도 전역 혹은 중부와 남부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원시한반도어를 기층으로 하여 그 위에 알타이어계의 언어가 얹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지명에서 추정되는 언어인 것이다.”

셋째는 앞으로의 계통 연구의 과제이다. 한국어와 이웃 언어 사이의 친근 관계에 대한 증거가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는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대응 예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설명적 장치로서 원시한반도어라는 기층 가설은 포폐가 언급한 비알타이어 요소의 한 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앞으로 증명되어야 할 가설이라 하였다.

7. 김방한 선생님을 기리며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에 우리들에게 자주 저녁을 사 주셨다. 중국 음식도 사 주셨고, 돈가스를 좋아하셨던지 그것도 자주 사 주셨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무렵 봉천동에서 이름난 ‘가을비 우산 속’이란 맥줏집에도 종종 데려가셨고, 시청 앞 ‘우전’이라는 일식집에도 즐겨 데려가셨다.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를 좋아하신다는 말씀도 그때 하셨다. 늘 잔잔한

미소와 온화한 선비의 마음으로.

선생님을 처음 교실에서 뵈는 이래, 교실 안에서 그리고 교실 밖에서 30년 가까이 선생님을 모셨다. 학문적으로 입은 은혜 물론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잔잔한 미소와 온화한 마음과 함께 보내 주신 인간적인 선생님의 가르치심은 더욱 깊고도 높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내가 강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강의 방법이 둘 있다. 하나는 강의 시작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지각을 허용하지 않는 일이다. 지성인이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는 필기하는 방법을 첫 시간에 알려 주고 학기 내내 노트를 확인하는 일이다. 노트 한쪽 면은 강의 내용을 정리하라 하고 나머지 한쪽 면은 각자가 강의 내용과 관련된 참고 문헌을 찾아 공부하여 보충하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바로 김방한 선생님께서 배운 강의 방법 그대로이다.